東亞日報

定價 一個月 六十錢 … 廣告料 …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 … 發行兼編輯人 … 印刷人 …

晉州一新高普變更說

(一)

晉州에셔 來하는 傳說을 綜合하면 最近 一新高等普通學校는 順調로 進行되던 것이 最近에 이르러서 險路에 臨하엿다고 한다 그 內容으로 말하면 五十萬圓 財團法人으로 當局의 認可가 이미 되엿고 現今은 三十六萬圓 可拂이 되엿스며 其殘餘部分十四萬圓 內外 되는 金錢은 出資者가 來四月 外지는 納入시키겟다는 約束下에셔 該校當局者는 來學期 부터는 學生을 募集하야 敎授를 始作할 準備까지 하고 잇는 바 今般 慶南道廳에서 道廳을 釜山으로 移轉하는 데에 因한 晉州發展策으로 何等 施設을 一般에게 言約한 結果 그 約束을 實行키 爲하야 今般 晉州 一新高普를 公立으로 하겟다고 한다는 데 在來의 民立中에셔 二十萬圓만 道費로 補助를 하고 其餘金으로는 女子高普를 設立하라는 內意를 表示하엿슴은 아니라 道當局에서는 自己네의 意見을 實現키 爲하야 努力하는 模樣이라고 한다

(二)

그러나 總督府學務局長 李軫鎬氏는 此問題에 對하야 不同意하는 意見을 가지고 잇는 模樣이니 卽 이미 가 成立된 高等普通學校이면 이것을 完成식힌 後에 當局이 單獨으로나 或은 民間과 合同하여셔 女子高等普通學校를 設立하는 것이 일의 順序라고 한다 다시 말할 것도 업시 이것이 當然한 順序일지니 結局은 그리 되리라고 밋지만은 最近에 晉州地方에서 오는 消息을 듯고 吾人은 다시 慶南道當局者와 晉州地方의 一部人士에게 反問하지 아니할 수 업다 道當局者가 眞心으로 晉州地方의 發展을 爲하야 施設하라고 하면 完成에 近한 一新高普의 財産 二十萬圓을 要求할 理由가 어데 잇는가 一新學校가 成立될 可望이 업다 하면 모르거니와 이미 다 成立되엿거늘 그 二十萬圓을 要求하는 口實은 女子高等普通學校를 新設하라는 데에 잇는듯하나 무슨 理由로 高等普通學校로는 엇지 못할 所要財源을 各々 該地方人士의 熱誠으로 從來에 私立인 中에셔 引出하여다가 當局이 所要金額을 加하야 가지고 高普를 經營하려고 하는가 그것보다도 女子高等普通學校 一個를 特設하려고 하는 當局者의 心算일 것 갓흐면 私立 一新學校는 그대로 두고 女子高等普通學校를 率直하게 公立으로 設立하는 것이 理論上으로 當然하지 아니한가 그러함을 不拘하고 女子高等普通學校에 二十萬圓만 하기 爲하야 一新學校에 二十萬圓을 要求하고 이것을 公立으로 된 普通校를 新設하라고 하는 것은 實로 理解할 수 가 업는 論法이라고 아니할 수 업다

(三)

女子高普를 增加하라고 하는 것이 道當局者의 本心일 것 가트면 一新高普와는 關係도 업시 女高를 公立으로 新設하거나 그러치 아니하고 一新高普에서 二十萬圓을 要求하야 가지고 그것을 公 …

孫氏元氣恢復

語調도 平素와 無違

孫文氏의 北後容態는 大端히 順調로 되엿는 바 三十日朝에는 粥과 頸卵等을 攝取하엿스며 元氣가 漸次 振作되고 語調도 平素와 無違하게 되여 孫氏夫人은 喜色이 滿面하더라 (北京三十日發)

善後會議의 三問題

段執政以下出席

善後會議는 二月一日 總統府에서 開會하기로 決定되엿는데 此는 各軍의 領袖及地方長官으로 부터 出席又는 代理派遣을 通知한 것이 임의 百二十八名에 達하엿슴으로 善後會議條項에 規定된 法定人員인 全員의 三分之二卽 九十名을 超過하야 會議의 成立을 보게 된 것이 업는 緣故라 하며 政府側에셔는 政治的 改革의 根本法案을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는데 그것은

一、現在의 無統一한 軍制를 統一할 件

二、聯省自治

三、國民會議의 組織方法

의 三問題이라 하며 會議에는 段執政以下가 出席한다더라 (北京三十日發)

盧氏軍隊上海到着

盧永祥氏麾下의 軍隊 一萬五千名은 今日 上海에 到着하야 完全히 市를 掌中에 너엇는데 目下의 市內는 매우 平穩하더라 (上海二十九日發)

來에 如此한 일이 업게 하겟다고 誓約하엿스며 負傷者에게는 慰藉金 一千圓을 주기로 하야 去二十九日에 圓滿히 解決되엿다고 三十日 本領事館에서 發表하엿더라 (長春三十日發)

盧氏雪怨

張作霖氏에게 打電

盧永祥氏는 張作霖氏에게 今年 南方의 爭亂을 一掃하고 齊燮元氏로 하야금 日本에 亡命케 하야 昔日의 恨을 풀엇슴으로 매우 愉快히 思한다고 打電하엿더라 (奉天三十日發)

王正廷氏

駐露大使에 任命

中國政府는 王正廷氏를 駐露大使에 任命하기로 決定하고 임의 王氏의 承諾을 엇고 目下 莫斯科政府의 同意를 要求한다는데 中國政府는 中露條約이 批准되야 日本의 駐露大使가 莫斯科에 赴任하기 前에 自國의 大使를 派遣하려는 意嚮이라더라 (北京二十九日發)

上海戰爭防止의 執政督辦

條令近々發布

段執政은 雙者에 上海附近의 戰爭을 誘致한 護軍使와 兵工廠를 撤廢하야 執政府聯合會를 設置하고 外交財政及商業의 三部에 分하야 上海地方을 永久緩衝地로 하라는 計劃으로 上海執政府辦條令을 起草케 하엿슨즉 大體의 成案을 엇더 法令으로 發布를 볼 것이나 辦에는 相當한 人物을 任用하려 하는데 一部 商民들은 顔惠慶氏를 推薦한다더라 (北京二十九日發)

保安總司令部

上將軍公署에 設置

張作霖氏는 北京政府에 服從하게 된 結果 東三省保安總司令部를 奉天 上將軍公署에 設置하고 指揮하는 總司令部職員을 그대로 將軍公署長에 任命하고 從來의 總司令部經費 三千元을 五千元으로 增額하엿더라 (奉天三十日發)

長春中警備隊

事件解決

昨年十二月二十一日에 中國警備隊가 附屬地에 無斷侵入하고 馬賊逮捕를 稱하야 中國人을 殺害한 事件은 同警備隊長이 領事警察署長을 訪問하야 遺憾의 뜻을 陳謝하고 暴行者는 嚴罰에 處하는 同時에 將

齊氏別府到着

日本에 亡命한 齊燮元氏 一行은 三十日 午後 三時 三十五分에 別府에 到着하엿는데 別府警察署에셔는 黎元洪、盧永祥氏等의 例에 依하야 嚴重히 氏의 身邊을 警戒한다더라 (大分電)

土露艦隊入航反對

露國의『우랑겔』艦隊가 黑海로 入航함에 反對한다는 것을 特히 指摘하엿더라 (룬돈 二十九日發)

英國首相『불드윈』氏는 英國政府는 國際聯盟의 關이 되도록 若干의 協定을 遂成하겟다고 希望하는 것이 共同行動을 取함이 緊要하다고 斷言하엿더라

智利大統領再選

確聞한 바에 依하면 智利陸海軍代表는 國事評議會의 一般文武官과 共同行動을 取하게 되엿스며『아레산드리』氏가 再次大統領이 되엿다더라 (룬돈二十九日發)

獨逸預算剩餘

四億七千萬圓

獨逸財政長官의 斷言하는 바에 依하면 今年의 獨逸豫算의 剩餘金은 九億四千萬馬克에 達하리라더라 (룬돈二十九日發)

伊機世界一周

飛行計劃

伊太利航空隊長『데피네드』少佐는 今年 五月을 期하야 世界一周飛行을 斷行할 計劃을 發表하엿는데 計劃에 依하면 少佐는 來五月에 羅馬를 出發하야 亞典과 埃及을 經由하야 黃海에 當到하고 그곳으로부터 亞細亞大陸의 南部沿岸에 沿하야 日本에 飛行하고 更히 太平洋의 上空을 經由하야『쇠드니』에 到着할 豫定이라 하며 其飛行日程은 五萬五千基米라 한다 그런데『데피네드』少佐는 一名의 技師를 同乘케 할 豫定이라더라 (羅馬二十九日發)

露駐日使決定

日本駐在露國大使는 莫斯科情報局長『코프』、『쥬레인』氏로 決定되엿다더라 (哈爾賓三十日發)

露奉天副領事赴任

露國奉天副領事에『알렉산들로프』氏가 任命되야 二十九日 北京으로

부터 赴任하엿더라 (奉天三十日發)

쳬크駐箚日使到着

『쳬크슬로바키아』駐箚新公使福參與四郎氏는 大統領『마사릭크』博士에게 親任狀을 提出하엿는데 大統領은 讓者日本新聞中 彼自身이 深甚한 歡待를 밧엇든 것을 一想하고 福地氏에게 感謝하엿다더라 (꼴그라드二十九日發)

佛國不撤兵理由

佛國々務總理『에리오』氏는 下院에셔『라인』撤兵問題는 佛國의 安全을 保證하는 最好의 機會라 할 것이다 獨逸은 軍備縮少의 義務를 忘한 것이 그 問題의 源泉이니 第一 먼저 獨逸軍隊의 解散이 必要하고 또 獨逸政府가 聯合國에 對하야 獨逸의 兵器廠을 普通工業用工場에 轉用하겟다는 것에 承認한 것을 利用하야 兵器廠의 擴張을 遂行한 事實을 들어 後獨逸政府를 非難하고 獨逸國民軍及獨逸兵役은 다 獨逸軍隊를 養成하는 것이라고 斷言하엿는데 議場은 그의 拍手로써 贊成을 表하엿스며 佛國의 各派政府委員도 一齊히 氏의 言論에 贊成하는 뜻을 表하고 獨逸의 不當을 攻擊한다더라 (룬돈二十九日發)

聯合大使會議

聯合國大使會議는 今朝에 會合하고 獨逸에 在한 現在의 工場을 軍需品製造所로 再次轉換할 可能性에 對하야 審議하엿더라 (룬돈二十九日發)

佛獨交涉破裂防止

獨逸은 最善手段을 講究中

獨逸新聞通信員의 所報에 依하면 獨逸政府는 佛獨의 交涉破裂을 防止하는 데에 最善의 手段을 講究中이라더라 (룬돈二十九日發)

反英大陸聯合出現?

英紙의 獨逸宣傳憂慮

倫敦의『모닝포스트』紙는 獨逸新聞은 獨逸이 歐洲의『앙고라삭손』民族의 利益外에 犧牲되엿다는 것을 宣傳하야 佛國에 對하야 復讐하려는 것을 觀取하고 獨逸의 如斯한 宣傳이 成功되면 反英大陸聯合을 現出하게 되리라고 述하엿더라 (룬돈二十九日發)

海外自治領과 協同

國際聯盟은 優秀機關으로 한다고

英國首相『볼드윈』氏는 英國政府는 國際聯盟으로 하야금 優秀한 機關이 되도록 若干의 協定을 遂成하겟다고 希望하엿스며 海外自治領과 共同行動을 取함이 緊要하다고 斷言하엿더라 (룬돈二十九日發)

共産黨員多數逮捕

『일메그로』新聞은 國家叛亂의 宣傳文을 各所에 配付하엿는데 其後 數個의 都市에서 多數共産黨員이 逮捕되엿슴으로 一般의 注意를 喚起하엿더라 (룬돈二十九日發)

各種法律案

委員會

一年現役小學校敎員俸給國庫負擔廢止法律案과 委員附託이 된 在外帝國專管居留地特別會計法廢止法律案外 一件에 對하야 委員會는 三十日 午後 二時 三十分부터 開會하엿는데 委員長은 一年現役 小學校敎員俸給國庫負擔廢止法律案은 大體에 議論이 잇는 模樣이라 關係法律案의 質問이 終了된 後 以上 質問할 것이 업스면 하고 곳 採決하게 되며 居留地特別會計法廢止法律案은 至極 簡單함으로 …

各地統治質問

卅日의 中議院

三十日의 豫算總會는 午前에 繼續하야 午後 一時 二十分에 再開되엿는데 議事進行中에

清瀨一郎氏 余는 左의 三點에 關하야 當局의 誠意잇는 答辯을 듯고 십다

一、各殖民地統治의 根本方針如何

二、地方制度의 根本的 改革必要를 認定치 안는가

三、現在政府若手中의 平等立法의 根本精神如何

日露協約成立顚末 (中)

日露協約의 內容을 보면 六個部分으로 成立되엿스니 (一)基本條約七個條 (二)A議定書五個條 (三)B議定書九個條 (四)日本의『사갈린』石炭採掘權에 對한 覺書 (五)『포스머스』條約(日露戰爭平和條約)에 對한 露國의 陳述書 (六)『니콜라엡스크』港虐殺事件에 對한 露國의 責任陳述書等입니다 …

基本條約

勿論經濟

私鐵補助改正

日本政府는 三十日午前의 院內閣議에서 左의 法律案을 決定하고 衆議院에 提出하엿다 朝鮮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件 右는 從來補助金三百萬圓式이든 것을 …

定例二派交涉

日本의 定例三派交涉會는 三十日午前十一時半院內控室에셔 開會하고 本會議改會後開會할 三派交涉會를 …

英米兩國

今年度의 鐵道

新事業과 施設

京城無線電話

放送區域

出願者와 協議後決定

京城無線放送局은 總督府의 決裁가 되면 出願者와 協定하야 設立할 터인 바 放送區域은 放送局設計決定이 못된 今日 勿論 不明하나 …

特惠關稅와 朝鮮

關東州日本間

天圖輕鐵延長

七月竣成

稚蠶共同飼育

十地臺帳登錄敷

輸入

滿鐵

◇東亞漫畫

消息

橫說竪說

本報又復押收

一月三十一日附發行本報第一千六百十七號는 記事中 … 押收되엿슴니다

東亞日報社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特約店募集 南洋公司

健康男女 蘇鐵靈寶

蘇鐵엔이素

起死回生의 高貴藥 無効返金 壹千圓進呈

內務省東京衛生試驗所分析證明
軍醫總監醫學博士高木先生推奬
朝鮮總督府醫院分析有効證明

新發明 酸精療法 通信傳授

團成社

朝鮮劇場

五千名學齡兒童의前途

—府內公普入學難救濟策—

경성부내에 약사만명의 아동이잇는데 그중에서 시내열일곱군데의 공립보통학교와 이십여군데의 사립보통학교에 입학한아동은 약이만명에 불과하고그 남어지아만명은늘면허바다야만할보통교육을밧지못하는중에잇다 물론조선은 의무교육제가아님으로 그중에 생활상관계이든지 혹은 그밧게여러가지사정으로 보통학교에 가지못할 형편에잇는 아동이 적지안을터임으로 확실한통계는업스나 엇잿든 금년신학기에는적어도 관공립보통학교에만 오천여명을수용하여야되겟는데 십사년도 경성부예산안에는 최대한도로 삼천여명에불과하고 약이천명은 도저히수용치못하게될터이니 이천부터 밀려오는 년년이 초과한 아동을지할하면 얼마나 만흘는지모르겟슨즉 이것이밧금 경성부민의큰걱정거리요 해결하여야만 될당금한문데임으로 학교비평의원회를열에는 학부형중의멋멋사지와 일부학교비평의원들은그대책을 연구중이라는데 본사에서는 이십만조선부민의 당금한문데를해결함에 한도움이잇슬가하야 이케부터 이에대하야 연구가잇는 학교비평의원과 관방면인사의의향을소개코저한다

運命을決定할學校費評議會

경성부에서 십사년도 보통학교비예산을 오십만팔천삼백구십칠원으로 사뎡하고 또한금년부터 이십구학급을 늘리어 삼천여명의신입아동을 수용할방침을 만들엇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오는삼일 오후두시부터 경성부회의실에 학교비평의원을소집하고 사뎡안의협찬을밧고자한다더라

降雪中火山爆發

삼십일오전네시경군마현서 눈오는중에화산이크게폭발 日本各地의天變地異

군마현백근산(群馬縣白根山)은 지난삼십일오전 네시경에 평장한소리가나며 크게 폭발되엿는데 마츰눈이 분々히나리는 중이엿슴으로 장야디방(長野地方)은새벽부터 만흔재(灰)가눈에석겨서 붉은 눈으로변하엿고 인심은매우흉々하다더라(궐교뎐) 로봉만한 광경이엿다하며 중앙기상대(中央氣象臺)에서는 삼십일밤중까지 계속하여 눈이올터이라고말함으로 더욱사람들을놀내고잇는중이라더라(동경뎐)

◇仙臺灰雨 선대(仙臺)에는 눈은오지 안엇스나 삼십일아츰부터 재가나렷슴으로 그곳사람들은이상하게 생각한다는데 창막(摘臣)의분화(噴火)와는조금다름으로 혹은만주(滿洲)의누른먼지(黃塵)이나 아닌가한다더라(선대뎐보)

◇岡山黃雪 일본금택디방에는붉은눈이왓다더니 강산(岡山)디방에는누른눈이왓다 삼십일에 누른모래(黃砂)석긴누른눈이와서 집웅우와 길거리는 진흙바다로화하엿스며 누런세게를 이루엇다하며 인민들은 이것이큰변디재(天變地災)의전조라하야 크게 불안을품고잇다더라(강산뎐)

◇福島灰雪 복도(福島)에는 삼십일 새벽에대략한시간쯤 눈에재가석겨서 나렷다는데 이것은 복도권현에나렷다더라(복도뎐)

◇秋田紅白雪 추뎐(秋田)현에는삼십일 오전일곱시 경부터 재가나려서 차힌눈이 붉고희게 되얏다더라(미텩뎐보)

京都赤化

이십구일부터

경도디방(京都地方)에는 이십구일밤부터 붉은눈이나려서 케차가량이나 쌋혓는데 원인미가쥬토색(赤土色)으로되엿다더라(대판뎐)

◇舞鶴怪雪 무학(舞鶴)에는 한치가량의 눈이싸히게 되엿는데 눈이 이상한빗을띄여서 동에는 담은붉은 빛이 진흙으로 변하엿다더라(무학뎐보)

◇金澤紅雪 재작삼십일아츰부터 일본금택(金澤)디방에는 붉은눈이와서 만흔사람에게 이상한감상을주어 한이야기거리가되엿다는데 이붉은눈이온데 대하야 금택측후소(測候所)에서는말하기를 그날아츰에 기부현(岐阜縣)에서류황(硫黃)이폭발이되며 그류황이 맹렬하게분화되기시작하엿다는 보도가잇섯슴으로 아마 그류황재가 눈에석기여 그가치붉은눈이 온것이라고한다더라(금택뎐)

東京大雪

삼십일아침부터강설 교통두절상태

재작삼십일 아침부터 간단업시 내려싸이는 눈은오후 다섯시까지에 한자세치가 넘도록싸이여 근년에커음 보는눈이엿슴으로 동경시내외를 물론하고 뎐차(電車)와마차 자동차는 길이막히여 운뎐이 뜻치못하는형편임으로 교통이두절하여 시민들의여러가지 희비극은참으로 [illegible]

稀有酷寒

北海道旭川地方 섭씨령하이십팔도

북해도욱천(旭川)디방은 대한(大寒)이래로 근년에드문 혹한이엿섯던바 지난 이십팔일부터 혹독히 추워지기 시작하야 삼십일오전일곱시에는 섭씨령도이하(零度以下) 삼십도에이르게되여 수십년래의 처음보는혹한이라더라(욱천뎐)

에피해가 만엇슴으로 대판과경도(京都)와 장기(長崎)에통하는 것은 대개통치못하게 되엿다하며 구주(九州)만주(滿洲)방면에 가는면보통신은 며칠날지 될터이라고 중앙 뎐신국에서는발표하엿다더라(동경뎐)

釜山도猝寒

삼십일아츰부터

재작삼십일 아츰부터 부산디방에는 긔온(氣溫)이 돌연나리지며 추운바람과 눈이모리 치기시작하야 차힌눈이두치가 넘엇슴으로 로싸뜻한 이디방에커음 보는큰풍설이라더라(부산)

通信交通故障

일본각디눈통 일본조선간도

재작삼십일오후게시부터 명고옥(名古屋)대판(大阪)사이에 차차통되엿슴으로 눈으로말미암아 뎐신선(電信線) [illegible]

解放運動同盟

광주에서발기

작일에보도한 전남각디방의사회운동자들이 영촌간친회를 맛치고 즉시그청년회관에서 해방운동자동맹(解放運動者同盟)창립총회를 [illegible]

二重負擔의市場稅

營業稅外 시장세까지

◇김천은원래 상업뎍디대(商業的地帶)인 까닭에 불평과민원이 대개이러한방면에 잇는데 첫재로시장세에 대한 불평을들어보면 김천장은원래삽십(三十)년전에서도유명한장으로 경상북도안에서는 큰장터구다음가는 큰장인데 시장구역으로는 옥뎡(旭町)과본뎡(本町)을넘어허모다일권이 바뀌는 가량이나되는 백호 그중에는 조선사람이경영하는 상업자이고더욱이 그대부분이 상업자인이라고한다

◇그런데이에 대하야 면당국에서는 [illegible]

隱蔽된官惡과民怨(四)

◇金泉—南隊巡廻記者柳完熙—

(面當局)에서는 조곰이라도 의뢰를보아주기는 고사하고오히려시장세로 일년간에칠천원이라는만흔세금을 징수하야가면서도 이것을상설상업자에게 까지징수하는까닭에 그들은영업세(營業稅)로뿐더러 시장세까지물게되는 셈이중으로 세금을물고잇다고 한다 그로인하야 재작년삼월경 맛츰네큰풍파가지 일어낫슴에도불구하고 면당국은오늘날까지확호한단성을 하지못하고 어름어름하야오는 가운데일반시민의 불평은나날이 늘어만갈뿐이라고한다

道當局食言背約

금천금융조합문데와 경북도당국의거짓말약속

◇둘재로 김천에는 촌락금융조합인금릉(金陵)금융조합과 도시금융조합인 김천(金泉)금융조합의 두가지 금융조합이잇는데 방금 도시금융조합인 김천금융조합에 문데가 만히잇다 이금융조합이 설립되기전에는 저축계(貯蓄契)라는것이 잇섯는데 경북도당국은 여러가지로 권유하야 조합리사를언케면 조선인으로 선뎡한다는조건아래에 더욱계자금중으로부터일만팔천여원을뗴여 권리김천금융조합을 설립하기로하고 그 조합리사를 더욱조합권무리사로잇던석태형(石泰衡)씨로 임명하엿다

◇그리하야원만히금융조합사무를처리하야오던중 삼일운동(三一運動)이 이러나자도령당국은석태형리사가 만세사건에 관련하얏다는혐의로 회원에게 이렇다는통지도업시 곳면직을식혀바린후상홍(尙洪)이라는 일본인리사를 드려안친후 로부터는 조합원의권리라는것은유명무실이되야 바리고도당국의마음대로 리사를갈러가지게 되엿다는데 [illegible]

◇그리고보니 도당국도 엇지 할줄을몰라 이왕 이번에는 [illegible]

第二東拓

作料暴徵 작년도의도조는여전

◇넷재로일반소작인측에게 가장원망의소리가놉흔것은데이동척(第二東拓)이라고까지 일홈것고잇는산음도 주식회사이다 조선인에잇는지 덤이라고는 다만이김천에잇는지덤한군데뿐인데 김해(金海)

巡廻記者消息

◇北隊 長淵郡 ◇南隊 三十一日晉山發 向尙州

美人自來

아닌밤중에 마인이차저들어

지난이십팔일밤 열두시경에 평양경상리(慶上里)이십일번디량 귀송(梁貴松)(여)의집에엇던엇갓돈 미인한 사람이주인도 찻지안코 감작이드러옴으로 주인은 하도놀랍고 이상스러워서 웬사람이냐고물은즉 나는 밤중에 길을온사람으로 너무 치워서몸을좀녹이라고 드러왓노라 함으로 청상이가궁하야하로밤 자고 가기를허락하고 잇는날 아츰에 뢴문녀자로서 밤길을 거렴온사 정을부탓더니자기는황해도사리

今日開館

학생에게한해 京城圖書館

안동안녕관중이던 경성 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는다시서광을보아근근 개관될터이라 함은임의보도한바이어니와 학생들의 독서열이 나날이더하여가는 이때에 일반만하니라 각학교의 입학시험준비시긔에 잇는이때에 그학생들에게 하로라도 속히편리를 도모하여주기 위하야위선 학생들의관람에 한하야금일부터 개관하게 되엿다하며 경성부에서도 이도서관에대하여 호의를가지고잇는 중임으로 불원간에원만한 유지책이뎡하며 짐것이라 하며따라서 일반관람자도 미구에관람하게될터이라더라

無産同志

새로발기해

[illegible]

問題이든第九條

會社側畢竟應從

파멸에파멸되든가장문데의데구조

필경은회사측에서응종하고말엇다

京電爭議一段落—未解決五個條

경뎐쟁의(京電爭議)가이러나서 회사측에 이장기간을 데출한뒤 회사당국은 경면회사에 한지 데삼조(交代員의前途에)의관한 마럿 [illegible]

解決件實施準備

第一着으로乘務員募集

임의해결된조건의실시요구 회사측에서도성의로준비해

貫鐵洞에猩紅熱

일본녀자사망

[illegible]

衰殘한 清室의末路!(二)

로신들의몽상도일장의춘몽 가련한선통은존칭까지뺏겨

◇……이와가치 자래의 력사관계가잇는 한족과 만족의 관계는 이를따라서 더구나 쎄게 ……

聯合後援

승무원백여명이모혀 후원회를조직

[illegible]

東京가서談判

원만해결이못되면

[illegible]

◇綱領

一、我等은穩健한態度를가지고業務에勵精함을期함

二、代表委員의運動費는從業員全體가負擔함

三、今番要求事項이不應하는時는積極的手段을取함

◇委員 金鍾昌, 副會長 [illegible]
永登浦九名, 官業部十六名
調査部七名, 會計部二名, 書記二名

解決後就業

대표위원의결심

[illegible]

楊州에표범

처녀에는사람이몰려 돌재날에잡혀

양주군와부면월문리(楊州郡瓦阜面月文里)사백이십오번디조한순(趙漢順)(二○)은지난월아호랫날에부며병자청(明府洞)에서 [illegible]

萬圓請求의脅迫文

「不應하면門中全滅」

청주부자에게무서운협박문 공교히주인이죽어풍설서리

[illegible]

土窟中에乞人凍死

립정뎡부근의움집속에서

[illegible]

在京露人調查

시내경찰이일케히

[illegible]

江原道知事 親父를告訴當해

배임고사죄로

[illegible]

賭博盛行

[illegible]

日人暴行

붙난데에서

[illegible]

兄弟強盜

평원서에잡혀

[illegible]

宋秉畯이死亡

죽기는순사라

[illegible]

◇모임◇

[illegible]

◇휴지통

[illegible]

第卅參回決算公告

[illegible]

京城電氣株式會社

[illegible]

天惠堂大藥房

[illegible]

金錢과 穀物을 隣近一帶의 貧民들에게 分給하엿슴으로 一般은 氏의 篤志를 稱頌한다고(光州)
…에 잇는 …夫人이 美擧 五十圓 「錢貨」 二百十九圓七十六錢을 同情하여 …
…地方의 旱害의 程度는 一般이 다 知悉하는 바어니와 一般窮民의 生活狀態는 날로 慘境에 싸져 果然 그 … 貧民百餘人에게 分配하엿슴으로 一般은 稱頌이 嘖嘖하다고(金堤)
…名을 面事務所에 召集하야 均一히 分配하여주엇슴으로 一般은 稱頌한다고(金堤)
…에게 一人當 白米五升式 分給하엿슴으로 一般은 그 慈善心을 稱頌한다고(公州)
…同里四十餘戶 … 一個月間 … 하엿다고(沙里院)

▲小作米品評會 開城郡小作米 … 會議所에서 去二十九日에 … 役員과 委員會를 開催 …

全羅南道內 農業日人의 形勢 (大正十二年度末現在)

◇所有地積이 逐日增加

全羅南道內에 散在한 日本人農業移民數를 調査하면 大正十二年度末現在戶數 一千六百九十五戶 所有地面積은 畓 一萬一千二百七十八町步, 田四千○四十四町, 林四千百十三町, 其他千百八十町, 合計二萬一千町步에 達하엿다는데 此를 各郡別로 見하면 左表와 如하다고

郡名	所有地	戶口
光州	五,一三二	一六○
潭陽	一,五一四	九○
光陽	二,七○六	二一
麗水	一,二五七	三二
順天	二,一九六	一一四
高興	一,八五○	七一
寶城	一,八八七	三三
長興	二,七六○	六○
康津	三,三七四	二○
海南	五,四二六	七六
靈岩	一,四八六九	五八
務安	四,五二一	一八
羅州	五,四二七○	二五
咸平	四,七四二	三三
靈光	一,八九四七	三二
長城	一,○七○九	一五
珍島	一,一○六	七九
濟州		六
計	二○,九八八	一,六九五

所有地의 調査로 示하면 戶數는 別로 變動이 無한 模樣이나 所有地面積은 逐年增加되는 傾向이라고

志東南斗車乃均外諸氏의 發起로 去二十日에 該洞車國輔氏家에서 洞民大會를 開하고 臨時議長車國輔氏司會下에 學校建築에 對한 趣旨說明이 有한 後今春에 永이되는대로 校舍를 建築하기로 一致可決하엿는데 被選된 任員의 氏名은 左와 如하다고(寧邊)

會長尹玉錫 總務車國輔 朴成桓 幹事長車乃均 幹事車斗柄 李癸三 趙炳瑞 張聖息 建築實行委員 車錫國 宋永權 張聖吉 黃道東 車乃均 會計鄭有保 車斗柄 建築監督 尹尙弼

勞働青年會

潭陽에서 發起

創立總會는 二月三日

去一月二十五日에 全南潭陽青年會事務所內에서 潭陽勞働青年會를 組織하기 爲하야 發起會가 開催되엿는데 創立總會는 二月三日에 開催하기로 決定되엿스며 그 發起目的과 及發起人氏名은 아래와 갓다고(潭陽)

目的

一、階級的自覺을 促進하야 解放運動의 先驅가 됨

一、我等은 相扶相助하며 哀樂을 相共함

一、我等은 解放에 必要한 智識의 吸收에 努力함

四氏

一、發起人 曹元錫 趙完 徐萬吉 外

一、創立總會時日 二月三日(陰正月十一日)午後七時

一、場所 潭陽青年會館內

道廳指示를 우물쭈물

校土作權과 定州郡廳의 態度

定州郡校地西面所在畓五斗落의 小作權을 鄕校財產管理郡廳에서 昨年四月一日에 剝奪하야 現員 李基稅에게 交付함으로 處分은 郡의 處理가 不公平하다 하야 小作權恢復運動의 陳情書를 道廳과 郡廳에 屢次提出하엿다는데 此에 對한 小作權變換의 指示가 잇섯는데 郡은 此를 不拘하고 지난 陰正月 初三日에 新舊兩作人을 郡守室로 召喚하야 半部式耕作케 하라는 處分을 하엿스나 盧氏는 最初에 無效한 處作은 무슨 理由이며 인제 또 李基稅에게 付與한 權利를 奪還하야 半部式 仲裁 식힘은 其處理의 根本的精神이 那邊에 在한가 하야 來陰十二日에 또다시 道知事에게 直訴하리라고(定州)

米及大豆輸出

昨年中元山港

昨年中에 元山港으로부터 輸入된 米及大豆의 數量價格은 如左하다 하며 其輸出地方은 大阪神戶敦賀宮津舞鶴下關小豆島等이라고(元山)

玄米(單位圓)	石數	四一,九七七
	價格	一,二七九,九五四
精米	石數	三二,八四九
	價格	一,一四三,三六○
碎米	石數	二二五
	價格	三,七○○
大豆	石數	一六六,八九一
	價格	三,二五一,四九六

西外城洞民會

學校建築을 決議

寧邊郡寧邊面西外城洞은 戶數가 一百三十餘戶나 되되 敎育機關으로는 夜學이 一個에 不過하는 外

明新校의 前途

寄附도 만하서 昇格이 不遠?

定州郡安興面安義洞私立明新學校는 距今十五年前 舊韓國時代에 設立되어 其間에 敎育事業에 盡力하여 오든 바 設立者及校長其他洞內有志들의 努力한 結果 良好한 成績을 엇엇슬 뿐 아니라 이제 또 同校에서는 基本財產을 確固히 하는 同時에 現敎育令에 依하야 普通學校의 資格을 엇고저 昨年九月부터 新校舍를 該面中央地點으로 移築하야 六學年을 收容할 만하게 建築하는 工事는 來四月頃에 竣工될 터이라 하며 또 諸般校具設備를 完成키 爲하야 二千五百圓의 寄附許可를 得하야 方今 募集에 着手中이라는데 발서 基本財產으로 該洞內各契와 宗堂財產等과 延安金氏四派의 門契財產과 지 編入되엇슴으로 五千餘圓에 達하엿슴으로 同校는 不遠한 將來에 財團法人의 發起가 잇슬터이라 하며 學校의 昇格도 有望하다고(定州)

「弱者인 人民은 당할줄 아노라」

郡守의 威脅과 面民의 抗拒 ◇定州道路費問題後報

定州郡新安面에서 定州淸亭間一等道路急成工事費를 人民에게 賦課하고 又는 定州南面間과 碇川江架橋와 秦川間道路等을 道廳에서 起工援助할 擔保식힌다는 不條理한 理由로 面民에게 强要하엿스나 終是不聽하엿는데 그러나 民이 該夫役代를 不納하기로 同盟決議하엿다 함은 旣報한 事實이어니와 지난 二十八日에 當郡守孫應駿氏는 同面에 出張하야 面協議員一同과 各區長及有力者數十餘人을 面事務室로 招待한 席上에서 今番道路費는 道廳許可로 人民에게 强硬히 抗拒함으로 郡守一行은 終是 이 財源되는 다른 旣成한 費用을 納하려 하고 其代金으로 善期를 待하야 … 人民은 本來가 富할 줄 아노라고 執行은 官權의 萬能이어니와 弱者인 人民은 此에 諒解하라고 勸誘하엿스나 人民들은 終是 聽하지 아니하엿다고 面强制執行을 當하여도 怨痛할 것이 업다는 郡守의 말이 잇섯다 하며 무슨 일이든지 一口로 決死코 不納하겟다 强調한 것은 是安協을 不得하고 德書面으로 군은 決意로 答한 結果라고(定州)

苛酷한 地主

可驚할 搾取法

地稅와 藁價條로 每斗落五斗徵收

慶北英陽石保面院里洞李鉉乘은 郡內第一의 大地主로 秋收을 當하면 小作料에 苛酷한 것은 勿論이요 其外에 土地每斗落에 對하야 明太五尾式 바더내는 惡習이 元來 있던 바 昨年부터 地主가 納稅하게 된 것을 口實로 하야 小作料는 如前히 하고 地稅條로 每斗落에 正租四斗式 藁價條로 每斗落에 正租一斗式을 바덧슴으로 小作人의 怨聲이 藉藉하다고(英陽)

城津體育會

二十六日에 創立

多年間 城津社會에 잇서서 宿案이든 城津體育會는 本月二十六日本社城津支局에서 城津有志金熙俊朴萬協, 李化善外 諸氏가 모히여서 端吉線開通에 잇서서 그 中央인 城津은 年々히 旺盛하여 가는 城津及其外端吉線沿岸의 運動熱을 規模 잇게 獎勵하며 定期로 各種競技를 主催하야 分選手를 養成하자는 目的으로 組織이 된 바 發起者 康弘俊

解放運動者 第一回臨時總會

珍島爭議報告는 一編哀史

解放運動者同盟의 第一回臨時總會를 開催한다 함은 昨報한 바어니와 豫定과 가치 卅九日午前十一時 光州青年會館에서 申鉉鎭氏의 司會下에 會員點名及前會錄報告가 畢한 後 委員會의 提議案에 對하야 左記와 如히 決議하엿다고(光州)

提議案及決議事項

一、勞農運動에 關한 件

二、婦人運動에 關한 件

三、青年運動에 關한 件

四、勞働者及農民救濟에 關한 件

件

六、宗敎에 關한 件

七、衡平對策에 關한 件

八、運動線當面에 關한 件

九、民族運動에 關한 件

珍島郡內의 小作爭議事實報告를 듯기로 可決되야 蘇鎭浩氏는 無限한 島民全體의 生活狀態는 形容할 수 업는 悲境에 싸져 잇슴니다 官憲만 아니라 所謂警察官의 其 간섭이 다 이할 수 밧게 업스며 去年看坪時에는 該口할 수 업는 小作人 全體가 立會치 아니하엿슴으로 地主大多數는 看坪치 못한 後 小作人에게 交涉하기를 賃貸의 作定대로 四割만 收捧하겟스니 看坪하여 달라고 함으로 小作會에서는 看坪하여주엇더니

地主 들은 그 倍額으로 告知書를 發付하엿슴으로 小作人等은 무엇 地主들은 數十名役軍及巡査들과 同伴하야 戶々에 主人의 在不在를 不拘하고 强制收捧을 行하되 一言의 異議라도 잇는 者에게는 無條件하고 亂打할 뿐 外라 同伴警官이 業務妨害라고 引致하야 二十九日間의 拘留處分이 例事일 뿐 외라 그들은 豪言하기를 小作人은 너의들이 아니라도 日本移民과 中國農民이 얼마던지 잇슴으로나(地主)에게는 何等의 困難이 업다는 等惡氣揚々함으로 島內細民은 命在朝夕한 悲境에 處하엿다」는 一編哀史를 맛치고 豫算案은 原案대로 通過하엿스며 來月例會는 二月第四日曜日에 木浦에 會集하기로 한 後 定確한 時間과 場所는 委員會에 一任하고 本年四回의 機關雜誌를 發刊하기로 하야 그 資金으로 即席에서 百餘圓의 義捐이 잇슨 後 下午三時에 散會하엿다고(光州)

預金利率協定

平壤組合銀行

二月十一日부터 實施

平壤組合銀行에서는 預金利率에 對하야 左와 如히 協定하고 二月十一日부터 實施할 터이라고(平壤)

一、定期預金▲甲種年六分五厘以下▲乙種年七分以下

二、當座預金▲甲種日步七厘以下▲乙種日步七厘以下

三、特別又는 小口當座預金▲甲種日步一錢三厘以下▲乙種日步一錢四厘以下

四、通知預金▲甲種日步一錢五厘以下▲乙種日步一錢七厘以下

(甲種銀行) 朝鮮銀行支店、殖產銀行支店、安田銀行支店、(乙種銀行) 漢城銀行支店、大同銀行

當地의 富源

英陽煙草狀況

慶北英陽郡은 山間小邑으로 元來 煙草가 多產하든 바 中年부터 조금 衰退하는 傾向이 잇더니 當地專賣局의 獎勵한 結果로 昨年度耕作戶數 가 五千百三十戶에 至하고 總收入額이 十一萬八千圓에 達하야 全郡 七千餘戶의 生活及納稅에 緩和를 生함은 勿論이요 其他各怨業上 去來에 도 好影響을 生하엿스며 英陽 煙草의 香味品質이 優秀한 一等級이라고(英陽)

郡北金組新設

成安郡々北金融組合을 設立한다 함은 旣히 報道하엿거니와 業務區域은 郡北, 竹南, 法守三面으로 定하야 昨年十二月二十四日 許可를 得하야 本年一月六日에 創立總會를 終了하고 來二月一日에 業務를 開始한다는데 任員은 如左(郡北)

組合長 趙禎衍 理事 濱口喜八 監事 趙采鍋 趙濱 福原壽人 評議員 趙鼎瑨 富島安次郞 姜大澈外五氏

安城에 護岸工事

今年內에 完成을 運動

安城市場東南部에 貫流하는 安城川은 年々히 流沙가 川面에 集積되야 洪水가 잇슬 적마다 同市場에 沿한 數百戶의 人家가 危險하게 됨으로 同市場住民은 年々히 不少한 費用을 投하야 護岸工事에 全力을 傾注하엿스나 原來 巨大한 工事임으로 如干의 費用으로는 到底히 完全히 施工할 수 업슴으로 道地方費의 補助로 完全한 工事를 施行하도록 當局에 要望하엿스나 當局者는 아즉 아모 誠意를 보이지 안음으로 大正十四年度 地方費豫算으로 는 期於히 施工하기를 極力運動하다고(安城)

青年會創立

新正長湖院에

去正月初三日(一月二十六日)下午九時에 利川郡淸渼面長湖院天主敎禮拜堂內에서 當地李圭泰鎭 成 成以兩氏의 發起로 長湖院 青年會 創立總會를 開催하엿는데 當日入會者가 五十二人으로 大盛況을 呈하엿다 하며 任員選擧의 結果는 左와 갓다고(長湖院)

會長 金茂賦 總務 李圭泰 庶務部長 陸鴻 社交部長 金熙和 共存部長 林淳愚 評議員 黃永秀, 崔東洙, 金永燮, 尹柱徹, 徐相一, 金日煥, 崔甲石, 書記 趙在新 會計 趙成鼓

青年會組織

河東郡良甫面

慶南河東郡良甫面에는 青年會가 업든 바 良甫面有志諸氏가 青年會를 發起하엿다 함은 旣報함과 갓거니와 豫定대로 去二十日午前八時에 良甫面米穀組合事務所內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金厚權氏司會로 同會發起報告及規則通過와 幹部選擧等事務를 處理하엿다는데 被選任員은 如左하다고(良甫)

會長 鄭仍洙 副會長 鄭在伯 趙務金 主觀 鄭洪魯 鄭卿煥 … 總務部長 金寶權 敎育部長 鄭基鐸 體育部長 金原植

崇仁氷上競技

三十日盛況裡에 擧行

平壤崇仁, 崇德兩校에서는 聯合으로 第一回氷上競技大會를 一月三十日午前十時부터 大同江上에서 開하고 三百米, 六百米, 一千五百米, 百米, 二千四百米, 一千五百米 三千六百米各學年對抗리레等의 諸般競技가 잇섯는데 觀衆도 多數하야 頗히 盛況이 잇섯스며 三千六百米決勝에 第一着은 崇仁의 金泳模 (八分十九秒) 崇德의 金永根 (八分四十九秒) 第二着이 엇다고(平壤)

德山學院 昇格運動

四月부터 實現期待 面民의 熱誠

安城郡 德에 三竹面民의 熱誠에 依하야 同面敎育會經營의 德山學院을 大正十四年度 學校設置를 으로 公立普通學校로 昇格하기로 計劃함에 對하야 客年十一月中에 同面敎育會長 張容駿氏 外 八十三名의 連署로 校舍 (價格四千六百廿二圓) 備品 (價格四百四十圓) 建具幾品 (價格五百十九圓) 基地 (價格六百圓)과 寄附金六千圓 計 金 二萬二千三百八十二圓을 學校費에 寄附할 承諾書를 郡에 提出要望하엿다 함은 當時 報道한 바어니와 其後 同敎育會幹部諸氏와 面內有志諸氏가 寄附金收合에 全力을 傾注한 結果 敎育熱의 極度로 大部分의 收合되엿고 大正十四年度에는 豫期와 가티 開校하도록 極力周旋한다고(安城)

新友會創立

京義線沙里院에서는 去二十九日

吉州蹴球大會

青少年聯合으로 四日間

吉州郡德山面德新洞日進團主催의 德山公立普通學校校庭으로 一月二十五日부터 同二十八日까지 四日間 當校運動場內에서 郡內蹴球大會를 開催하엿다는데 優勝旗는 青年에는 邑內少年에 大年에 邑少年團이 參加團體는 左와 如하다고(吉州)

青年團 吉南, 龍南, 洞南, 石城, 南陽, 德新, 上下, 漆坪, 咸山, 新塔, 合浦, 鮮光, 上下, 라이온팀 少年團 邑內少年, 塔陽, 勞苦少年, 德新, 錦川, 上下, 洞南, 龍南, 南陽, 新塔, 洲南팀

하엿는데 盛況을 極하엿다고(咸川)

乘客馬車開通

宜川과 新市간

鎭川郡館西面道岳洞金麟所在地의 距離는 百里에 近한 山路이나 開通以來 各顧客은 物品과 商人들이 每日 頻繁히 來往하는 곳으로 交通機關은 牛馬 밧게 업슴으로 一般은 不便을 感하든 中 宜川邑內 朱々 有志는 馬車商會를 組織하고 中國馬車를 購入하야 通行한다는데 그 發着時間과 賃金은 如左하다고(新市)

▲北行 午前九時 宜川發 午後二時 新市着 同三時 新市發 同六時 道岳洞着

▲南行 午前八時 道岳洞發 同十二時 新市着 三十分 新市發 午後五時 宜川着

▲賃金 宜川新市間 壹圓八十八錢 新市道岳洞間 一圓 七歲以上十五歲外는 大人의 半額

木浦發展計劃

道知事에 陳情

木浦商業會議所에서는 過日役員會를 開하고 木浦發展에 關한 當面의 問題로 石油發動機船專用棧橋建設其他數項에 就하야 道知事에 게 要望을 提出하기로 決議하엿는데 其要點은 如左하다고(木浦)

一、木浦府榮町一丁目埠頭石油發動機船專用棧橋建設工事

一、木浦南岸埠頭航路浚渫에 相當한 補助費支給할事

一、本道水產試驗場을 木浦에 移轉할事

一、物產陳列所를 木浦에 新設할事

一、陸地棉種子更新은 二十五年計劃을 十個年으로 短縮促進할事

一、棉花販賣制度를 改善하기 爲하야 關係當事者로 硏究會를 組織케할事

一、本道內各地方小港灣에 連絡할 道路의 新設或은 延長及改修의 必要等을 施設할事

一、以移出檢查의 嚴重은 作產檢查로 改正할事

平澤윳노리모임

◇時 日 二月三日(陰正月十一日上午十時)

◇場 所 平澤 公 朝 日 館

◇會 費 一人 一圓

◇賞 品 一等金指環一個、二等銀時計一個、四等水木一疋 鹽時計一個

◇申請期日 二月一日까지

◇申請場所 東亞日報平澤支局

◇主 催 東亞日報平澤支局

◇後 援 朝鮮日報平澤支局

奇魔術大會

平南成川郡

邑內一般青年의 唯一機關인 成川青年修養會는 經濟的困難의 莫甚함이 一般의 共知하는 바이어니와 그 維持가 지극히 어려움은 勿論이요 그 維持가 지극히 하야 同會의 困難을 보고 收入金全部 를 補助할 好意로 지난 二十七日에 郡屬金七星氏는 元來奇魔術에 能한 바 지난 二十七日에 本郡에와 成川支局의 後援으로 天道敎大講堂內에서 奇魔術大會를 開催하엿는데 盛況을 極하엿다고(成川)

公州擲柶大會

陰十六日午後에

忠南公州에서는 陰新年을 祝賀하기 爲하야 本社支局主催와 公州青年修養會後援下에 公州擲柶大會를 左와 如히 開催한다고(公州)

一、時日 陰十六日午後一時부터

一、場所 公州錦江館

一、會費 一圓式(會員館과 交換)

一、會員券發賣所 本町李京鎭與商舖 本町柳應永雜貨店 東亞日報公州支局

一、詳細規程은 當日發表

機關車가 脫線

지난 二十九日午後十時京城驛發 三十號列車는 元山驛構內에 進入後 「보인트」에 故障이 生기여 機關車가 脫線되엿스나 人畜에는 何等의 被害가 업섯다고(元山)

◇地方短評◇

◇統營 統營精米所는 吉野町朝鮮人住家가 稠密한 大道邊에 잇슴으로 그 塵埃의 飛揚하야 數百衛生上에 害됨이 不少하다는 그 附近人家의 衛生에는 엇더할가 日本人商店은 朝鮮人健康은 破壞하는 것

◇鎭南浦 平和港平和港이라는 鎭南浦로 正東大事件의 端緖가 되고 出되야 警察當局에서는 매우 奔走하다는 데 密造로 爆藥探知를 鎭南浦稅關前에 一般商發見되엿다고 하니 嚴重警戒중이라고

◇釜山 府財務課에서는 戶別割課金에 家產差押을 勵行하야 古物商店以上이라고 古物商賣 웃은 언제 부터 인고

◇平壤 饑饉救濟會의 附券集受委員들의 訪問을 當하는 어떤 富豪는 閉門謝客하고 엇던 富豪는 面會를 한다 해도 次々補知云 々이 그들의 誠意라고, 露西亞로 移住하는 것이 엇데

◇天氣豫報 晴一時曇

溫度 昨日正午 二○、八
濕度 昨日最低 二二、二
降雨 昨年昨日 …

再生 (十一) 〔84〕 하편

長白山人 作 安碩柱 畵

봉구는 쳐음 경훈의 눈에 … 이 만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앗다 … 경훈은 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

「지금에 우리가 … 그러케 말하엿다 … 시 모다고 … 경상도사람이라고 …

한편 ○○단의 고려인 … 이라는 사람은 … 맛나게되엿다 …

그의 태도는 아주 오만하게 되엿다 …

質疑應答

一、質疑는 日常生活에 關係잇는 事에 限함 一、應答은 本欄으로써 함 一、質疑는 返信에 限하야 必히 住所 氏名을 明記함을 要함

【問】本人이 國定敎科書指定販賣認可를 得하야 販賣하든 바 年前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로 該權利를 넘긴 後로는 前販賣人이라도 該株式會社의 株金一株以上을 出資하여야 販賣權을 認定한다는 것은 本人은 아직 出資를 못하엿는데 以今이라도 出資만 하면 指定人이 될 수 잇슴 닛가 要本人區內에는 他指定人이 아직 업슴니다 또 前認可狀은 本人이 至今까지 가젓슴니다

【答】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가 成立된 今日에는 出資함을 不得함니다(綠陵士金用茂氏談)

讀書界好評의 焦點·重版又重版

무쇠탈

東亞日報連載·閔牛步 譯

裝幀斬新 美麗高尙 四六版四七三頁 定價一圓二十錢 送料 六錢 (三冊以下 三六錢)

東亞日報의 讀者치고 아누구가 「무쇠탈」을 모를 이 잇스리오! 此書는 일즉이 滿天下讀者諸氏의 熱烈한 歡迎을 博하얏슬 뿐아니라 譯筆의 流麗함은 그야말로 秋水를 疑할지라 엇지 尋常一般의 飜譯書에 比할 바이리오. 弊社에서 이에 此書을 上梓함은 오로지 我讀者諸氏의 渴仰에 副코저 함이라.

事實은 무엇보다 雄辯이다! 本書가 世上에 나지 未幾에 重版에 重版을 거듭하야 發行을 보게 된 本書가 一般 讀書界에서 얼마나 알들한 寵愛를 밧엇스며 本書의 가치가 엇더타고 說明하는 것이다! 내용이 엄마나 充實한가를 가장 雄辯으로 說明하는 것이라. 暴風雨몰어 드는 금음밤 가치 凄愴한 鬼火가치 明滅하는 陰謀와 起伏하는 正史實蹟은 流麗한 筆致에 生動하야 讀者의 眼目을 眩惑케 하는도다! 아々 讀書家諸君이여 只今即時이를 보라!

破格의 廉價 鮮明한 印刷 堅靱한 紙質 嶄新한 裝幀

等은 實地로 比較하면 알려니와 次코普通出版界의 企及치 못할바이라. 이도한 寵愛中의 「무쇠탈」로 하야금 一層光彩를 加케 함이오 弊社의 特色임을 自랑하야 두고자 한다.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東亞日報社出版部

總發賣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十二番地 振替口座京城二○二番 博文書館

京城府苑洞二○六
財團法人 徽文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第壹學年 約貳百名
願書提出期限 三月十四日까지
試驗期日 十六日부터 四日間
詳細來問

黑色染料
好評嘖々
三井硫化부락구
一、頭等優色
一、價格低廉
一、染法簡易
三井鑛山株式會社 三池染料工業所製 朝鮮一手販賣
釜山府本町五丁目(부산본정오정목)
中染法 定價表並 御請求次第 無料進呈 染料卸商 染色法附
都賣商 德壽洋行

김무홍先生著 定價 貳圓五十錢 送料 十三錢
집더조선말본
本書는 以前의 「조선말본」을 改正增補하고 卷末에 「좋을글」(橫讀書等……)과 「날젹」과 「및」(正字法)과 「조선말」 「語學의 要領」을 添付하엿다
總販賣所 京城府壽松洞六○ 朝鮮圖書株式會社 振替口座京城八三五三

經濟時論

日露條約과朝鮮貿易(中)

過去五六年間에 露西亞對朝鮮貿易은 殆히 三分의一에 減하야 輸出入額合하야 百萬圓에 不過하는 貧弱한 狀態에 陷하엿섯다 그러나 前記輸出入額內容에서 見知할바와如히 日本에 反感을 가진 勞農露西亞政府가 日本貨物의 入國을 禁止하면서도 自國產物의 輸出을 容認한 結果 露西亞로 보와서 輸入額보다도 輸出額이 多少增加할것은 大히 注意되는 바라 한다

◇

日露條約이 締結되고 通商貿易이 復活된 今後에 在하야 露領西伯利亞의 特產物이 되는 木材와 諸種水產物이 얼마나 만히 朝鮮에 輸出이 되겟스며 아직도 日用生活用品이 貧乏한 狀態에 在한 露西亞가 朝鮮及日本의 產貨를 얼마나 만히 吸收할가는 同國의 國內經濟狀態를 實地로 調査한 後가아니고는 推想키 어려운 일이나 露西亞의 國內經濟의 實情보다도 朝鮮及日本의 目下의 經濟事情에 依하야 推想할진대 露國에 對한 輸出이 大히 增加하지 아는가 豫想한다 엇지하여 그러한가하면 日露條約의 締結을 따라서 通商의 回復은 露西亞가 自國의 產物을 輸出코저하야 通商을 承認하엿다 하느니보다도 日本이 要求하는 日本이나 同一히 朝鮮으로부터의 輸入品에 對하야 從前과 如히 輸入禁止를 撤棄하고 自由輸入을 許하엿던 것이니 意味가 大하고 影響이 多할 터인 것이다

◇

日露條約과 朝鮮과의 關係는 政治的 意味에 잇서서 其關係가 大하겟고 經濟的 意味에 잇서서는 別로히 重要視할것이 업다고 생각한다 엇지하야 그러한가하면 日露間에 通商이 다시 開始되야 露西亞가 其產物을 日本이나 朝鮮에 輸出하는 것보다도 日本이나 朝鮮으로부터의 自由를 許한다하면 日本으로부터의 輸出될 商品은 有할지나 朝鮮으로부터의 輸出될 商品은 其種類가 少할 것으로 생각하면 朝鮮產으로 露西亞의 需要에 適當할 品을 求하면 白米, 其他의 雜穀, 牛(生)牛, 牛皮, 朝鮮紙等이 有할 뿐이다 그러나 此等의 朝鮮產商品의 需要消費者는 露西亞人보다도 露領各地에 移住하여 잇는 朝鮮人의 大部分이 될 것임으로 其需要는 過大치 못할것이며 露西亞人의 需要品으로는 牛肉, 牛皮等 數種에 不過할 것으로 觀하야 日露間의 通商이 開始된다 하더래도 對朝鮮輸出은 過大치 못할 것을 豫想함으로써 思하는 바이다

限外延長

二月以後도必要

日本大藏省의 示達에 依하야 鮮銀券의 限外發行額은 三月外지 中止할수 업슴으로 當然히 三月頃에도 限外發行을 許容케 될것이며 一千萬圓乃至一千五百萬圓假量은 어느때든지 必要하니 昨年中 發行額의 最低限度는 七千五百萬圓이엿스나 此는 極短時日로 今年에는 物價騰貴와 日露條約의 成立等으로 昨年보다 正貨準備에 量을 增加하게 하는 잇스니 現在의 「르」市場을 期待하기 어려우며 또 月中에는 舒緩하엿다가 月末에는 곳 緊縮되야 그 上下의 程度가 잇다고 限外가 不許可가 되면 鮮銀自身의 不利와 朝鮮金融界의 打擊뿐만 아니라 日本金融市場을 擾亂할 念慮가 업지 아니하고 鮮銀券을 增發할 必要上 準備金으로 日本市場의 「르」를 이 만히 流入되면 變態的 日本市場을 움츠려 狀態를 呈할 것이라고 云云 (朝鮮銀行側談)

露國의鮮銀券

流通範圍擴大

日露條約의 成立은 鮮銀券의 發展을 一般的 期待하는 바는 鮮銀券의 流通額은 鮮銀側觀測에 依하면 朝鮮五割 滿洲四割 其他一割의 比로 日露貿易의 進展에 依하야 今年末頃에는 此方面에 鮮銀券一千萬圓假量 增發이 必要하리라더라

露金解禁의影響

勞農露國人民委員會의 決議로 金銀紙幣 有價證券等의 輸出入이 解禁케 되면 影響은 甚大하니 西伯利亞의 砂金及金鑛은 昔에 金量等有名하나 革命時代에 廢棄되엿더니 最近에는 漸次 復活하며 또 金鑛買物도 매우 만흐나 採取된 金地金은 輸出禁止한 까닭으로 黑河岸外지 持出한 後 哈爾賓方面에 密輸出하야 多少는 朝鮮에도 輸入되나 大概는 上海에 보내는 바 將來 日露條約細目이 協定될 때에는 金鑛砂金의 經營은 가장 有望하며 또 鑛區의 買入等도 有利하고 金地金의 日本輸入은 目下 旣啓가 不良하야 哈爾賓에서 一匁價 六圓九十錢으로 現在에는 有望치 아니하나 公然히 輸出入이 되면 海蔘威로부터 收買에 輸入될것이다 또 紙幣는 曾往 鮮銀券의 輸入禁止勵行으로 海蔘威鮮銀支店에 上陸하엿스나 事實上 同方面의 正貨「루블」은 極少하고 鮮銀券이 만흔 外닭으로 去來上 支障이 생겨 交涉한 結果 今日에는 自由로 積送됨으로 事實上 解禁의 影響은 업스며 一般證券 有價證券의 輸出入은 日本에는 거의 關係가 업고 다만 歐洲各國間에 相當히 利益이 잇슬 모양이라고 云云 (鮮銀支配人談)

外米輸入前途

拂下要望消滅

一月十八日 朝鮮穀物商聯合會協議會에서 外米拂下를 要望하기로 決議한 것은 當初에 全道에 二十萬石假量의 豫定이엿스나 그 後 各地方의 組合에서 實際 申請한 數量은 九萬石假量에 不過하고 條件其他도 到底히 成立할 希望이 업스며 또 外米拂下도 今月로써 中止가 될 듯으로 이 要望도 自然히 消滅될 모양이다 今後 朝鮮에 輸入할 外米는 日本商人을 經由하거나 或은 直接 外米를 買受하야 神戶 또 門司에서 다시 移出한 後 輸入될 터임으로 關稅免除를 朝鮮에서 施行與否는 實際去來上에는 마모 影響이 업스나 朝鮮에서 多少의 外米가 普及될 터임으로 疑問이니 今年度의 外米輸入豫想高는 五十萬石이나 朝鮮農家에서는 外米보다도 粟을 嗜好하는 結果 外米輸入은 巨額에 達치 못하리라더라

預金協定細目

追加議定必要

組合銀行預金協定은 아즉 正式으로 違反한 것은 업스나 銀行이 各各 特殊한 預金이 잇서 實際上 規約適用에 疑議가 생기는 일이 적지 아니한 모양이다 即 官廳 近民의 强調稅金 또는 通知預金의 一覽拂과 가든 것을 換出할 때에 各銀行의 利子決定上 意見이 相異하야 某銀行에서는 新率에 準據하고 또 某銀行에서는 一時 舊率을 襲用한 일이 잇는 바 此는 證券의 提出을 기다려 換出치 아니한 것은 是正할 수 업는 것과 預金主가 업서 證券을 提出치 아니한 것이다 何如間 大阪組合銀行等에서도 後日에 여러 가지의 細則을 追加하엿슴으로 朝鮮에서도 此等 疑點이 잇는 것은 追加協定할 必要가 잇다고 云云 (松原交換所監事談)

滿粉態度決定

一時觀望中이든 滿粉은 選者東京에 出張中인 鎭南浦分工場長 鈴木氏가 未久에 歸任途中 京城에서 三井物產當局과 最後로 協議하게 된다는데 滿粉은 鈴木氏 渡東中 東京幹部에 設立의 諒解를 어덧슴으로 急檄히 工場을 買收하리라더라

朝鮮炭發展策

採炭法改良

最近 鮮炭의 出現으로 從來의 撫順炭 日本炭은 漸次 驅逐을 밧는 것은 顯著한 事實로 將來에 또 特別히 發展되게 함에는 아즉도 研究할 餘地가 잇슬 것이다 目下 京城鑛局에서도 朝鮮炭을 微粉炭으로 完全燃燒를 圖할 計畫아래에 試驗하엿스나 그 成績이 조치 못한 모양인 바 姑息的 이런 手段은 到底히 希望이 업고 먼저 機關車 一部의 構造를 改良치 아니하면 그 効果가 僅少할 것이요 目下 價格은 撫順炭과 大差가 업다 하나 急激히 그 需要를 增加코자 하면 먼저 炭價를 低落케 할 것이다 即 會寧炭, 鳳山炭, 咸興炭은 採炭設備가 매우 不完全하고 北道地方의 設備를 完全히 하야 大量으로 產出을 圓滑할 必要가 잇고 市價를 引下치 아니하면 需要는 激增치 아니할것이라고 云云 (某商界通談)

粟關稅撤廢不能

(總督府當局者談)

最近 穀物商組合에서 滿洲粟의 輸入關稅撤廢를 要請한 모양이나 今年에는 大體上으로 粟의 輸入이 最多이며 또 旱災로 因한 凶年이나 最近 朝鮮沿岸各港에 米가 만히 積載하고 又 一面으로 日本方面에도 外米輸入關稅撤廢가 決定되든 二月부터 七個月間의 外米輸入은 意外 또 多數量에 適當할 모양임으로 果然 鮮米가 現在의 豫想대로 日本에 移出될 與否가 疑問이다 今年의 朝鮮內 食糧이 매우 缺乏할 것을 생각지 안코 關稅를 撤廢하야 滿洲粟을 輸入할 必要有無는 考慮할 點이며 百斤에 五十錢式의 輸入稅를 撤廢하면 곳 그만큼 米粟의 價格이 低落할 與否는 前例에 依하면 產地商人의 價格引上과 또 輸入商人의 投機等으로 需要者側에는 利益이 아니요 畢竟 商人만 有利케 될것이다 一時는 政務總監도 局部長會議에서 撤廢하자는 意見이엿스나 現在에는 그 事情을 理解함으로 輕히 斷行하지 아니할것이며 또 日本農商務省에서는 今年에 多量 外米를 輸入하야 二年來 持越品을 拂下하는 同時에 朝鮮地方에도 拂下할 意向도 잇는 此際에 撤廢치 아니할지라도 朝鮮內 食糧調節에는 큰 支障이 업슬 것이라고 云云

財海餘波

▲列車의 速度에 對하야 調査하야 보면 速力이 第一 싸른 것은 平南旅客列車로 一時間 二十九哩强이라 하며 其次는 京仁線急行의 二十九哩弱이라 한다 ▲京釜 京義의 急行列車는 約二十八哩로 普通旅客列車는 京釜線 二十四哩强 京義線 二十五哩强 京仁線 二十一哩弱이라 하며 馬山線 十七哩弱이 가장 더딘 列車인데 京元線과 湖南線과 比較하면 旅客列車는 湖南線 二十三哩强 京元線 十八哩强이라 하며 混合列車는 모다 十五哩內外이라 한다 ▲咸鏡線은 淸津雄南間에 二十一哩 咸興西湖津間 二十哩로 他는 二十哩 以下의 速度이라고

一月粟輸入量

(左側 欄外 一部 缺落) 粟 雜穀 … 三十分 京城大阪線은 午前十時二十分부터 下關 … 正貨準備 … 保證準備 … 英米貨幣 四弗七九仙二分一 … 三角山 … ▲兩金市(玉洋木) … 群山 …

株式

前場伸惱 (卅一日京取)

今場의 大新寄付는 依然히 保價인 八十六圓十錢後 곳 六圓臺가 깨여지고 五圓六十錢又新低價를 出現하엿스나 當地大新은 買進이 買方으로 運至하야 돌이혀 五十錢上鞘인 八十六圓九十錢付價이엿다가 보다 大阪의 軟弱步調를 追從하야 軟弱步調에 從來할 뿐이며 그 外 諸株는 小幅의 保合步調를 示하엿스나 아즉 伸惱의 氣分은 持續하엿다

前止比較‖▲京取五十錢高 ▲仁取十錢高 ▲仁新十錢高 ▲安取二十錢高 ▲鐘新二十錢高 ▲大新四十錢低

京取小幅昂騰 二十五圓臺

京取는 連日 持續되는 無勢傾向은 相談의 投資가 終熄됨을 따러 그 步調는 稍稍 健味를 되고 休憩의 狀態로 多少展開의 氣分이 보혓다 그러나 아즉 顯著한 買進이 出現치 안코 問題의 金融社持株處分 如何가 非常한 表現을 傍觀하는 氣配가 만흠으로 그 步調는 可觀의 色彩를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今場에 大新은 稍弱이나 三十錢上鞘인 二十四圓八十錢付價後에도 底强步調를 持續하고 買方主力側인 吉見도 今場에는 買方先頭에 立하야 買進의 氣勢가 相當하엿슴으로 畢竟 五圓臺의 突破인 止價를 示하엿다

持株處分決定五日?

金融社의 京取 株處分에 對하야 大證方針은 平岡專務가 決定하엿스나 最後決定은 行치 안코 目下 京取重役中 京城에 잇는 重役은 平岡, 荒井, 小杉, 進의 四氏로 天日氏는 東京, 平井氏는 大阪 各旅行中, 原, 古城兩氏도 別府滯在中, 李氏는 喪中等으로 重役會도 열기 어려운 바 天日社長은 五六日頃에 歸京할 터임으로 持株處分의 最後決定도 따라서 五六日頃에 될 모양이라더라

京城買大阪賣

昨日後場에 阪地休會는 大新에 對한 當地의 氣配는 淺濃裡에 潛在하야 眼着步調이든 바 今場에도 阪付는 依然히 保價인 八十六圓四十錢後 續落하야 六圓臺外지 崩壞할 을 보고 當付는 金潤秀 閔淵 吉田 中有 新田等의 買進이 만흐나 買方은 白井으로 五十錢上鞘인 八十六圓九十錢을 示하엿다가 阪止가 五圓七十錢임을 따러 겨우 六圓臺를 支持하엿다 要컨데 限月短縮問題의 惡感으로 投資가 輻輳하야 그 氣勢는 絕頂의 不振裡에 彷徨함에 對하야 目下 樂悲兩說이 잇스니 그 樂觀은 即

(一)投資物이 出盡하고 押目買의 傾向이 잇는 일

(二)金融緩慢을 背景으로 하고 日銀引下의 人氣材料로 反撥할 氣分이 보히는 일

(三)限月短縮延期는 오즉 貴族院이 問題이나 아즉 此를 悲觀程度外지 到來치 아니한 일

等으로 一部에서는 盛히 그 反動의 氣勢를 促進함에 注力하나 目下 狀態로는 此論은 貧弱한 感이 만코 反對의 悲觀이 事理에 適合한 傾向이 만흠으로 大新은 益益 新低價만 緖出하는 바 그 悲觀은 아래와 갓다

(가)그 새 投資側은 小局部的에 不過하고 아즉도 大口買物이 出現치 아니한 外닭으로 投資終熄이라 볼수 업는 일

(나)投機株인 取引所株는 今後에 漸次 採算本位株로 化하는 일

(다)金融緩慢과 日銀利下는 아즉 紙上空文인 感이 만코 또 人氣는 厭氣를 되이는 일

(라)限月短縮延期는 아즉 確斷을 말하기 어려우나 此運動의 頭腦人物等이 悲觀的 所論을 吐하야 弱氣가 漸次 濃厚하는 일

前場諸株步調

株名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低落

今場에는 仁新保價外에는 諸株가 다시 軟化하야 小落步調를 示하고 大新은 依然히 續落하야 一圓四十錢下鞘를 演出하엿다

前止比較‖▲京取三十錢低 ▲仁新保價 ▲鐘新八十錢低 ▲大新一圓四十錢低

後場諸株步調

株名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
仁新	[illegible]	—
大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

賣買成立高 短期 二千九百枚

大阪長期 (卅一日)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	—
商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	[illegible]
日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卅一日)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卅一日仁川)

前低落後納會

昨後場은 大阪初付가 三十八圓十二錢으로 一丁高報하니 中限은 三十三圓三十五錢에 先限은 三十四圓五十九錢 一丁低付한 後 阪地小强함을 따라 六十錢에 二錢에 怨高하야 伸合으로 小刻하더니 阪地二十錢이 買方의 爭先利喰買가 輻輳하야 六十八錢으로 七十七錢에 强하야 人氣稍히 强化한 氣色을 示하더니 七十二錢에 弛하야 七十一錢에 止하다

今場은 大阪初付가 九丁低付하야 三十八圓二十四錢을 報하엿스나 當地는 比較的 人氣强硬하야 中限은 三十三圓四十五錢에 先限은 三十四圓七十一錢에 前止價同價로 初付한 後 阪地小弛함에 따라 六十五錢에 小弛하야 六十三錢을 示하고 人氣更張하야 六十九錢에 反하고 買方이 互相決濟買로 六十八九錢에서 小刻하다가 阪地 十五錢의 低報를 接하고 六十五錢에 更低하야 五十錢에 納落한대로 止하다

新甫開稍如何

上期發會는年例

本日 前場으로써 三月限先物의 納會를 告하니 本月은 三十五圓八十錢에 發會하야 月內 稍稍漸低落의 步調를 演하야 百四五十丁의 低落을 示하고 平穩한 終幕을 告하엿스나 四月限新市는 如何히 開稍되야 發會할 것인가 此四月限開稍關係에 對하야 既往의 大正元年以降 阪地의 其開稍前例를 보면 十三年間 上稍發會가 八回이오 下稍發會가 四回 無稍가 一回이며 其上稍로는 最大한 것이 大正十二年 八十八丁 最少가 大正三年 二丁이며 下稍로는 最大가 大正八年 一百六十二丁 最少가 大正元年 一丁인데 其下稍로 發會된 時는 絕非時特殊事情이 有하야 或은 政府의 調節關係이거나 或은 標準米變更과 如한 事情이 有한 때이엿고 大證는 上稍發會가 原則이라고 볼수 잇슨즉 今次도 四月限事情이 무슨 特殊한 關係가 無함으로 年例의 上稍로 될 것은 殆히 無疑한 事實이나 昨今 米自體의 事情이 到底히 大한 上稍되기는 難할것이오 四五十丁 上稍로 發會하리라 한다

公定價格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	[illegible]	[illegible]
二節	—	—	[illegible]
三節	—	[illegible]	[illegible]
四節	—	—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八節	—	[illegible]	[illegible]
九節	—	—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賣買成立高 [illegible] 本期總數 [illegible]

大阪期米 (卅一日)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	[illegible]	[illegible]
二節	—	[illegible]	[illegible]
三節	—	[illegible]	[illegible]
四節	—	[illegible]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八節	—	[illegible]	[illegible]
九節	—	[illegible]	[illegible]
十節	—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卅一日)

前場			後場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各地期米 (卅一日)

	前場付價	止價	後場止價
兵庫	[illegible]	[illegible]	—
下關	[illegible]	[illegible]	—
桑名	[illegible]	[illegible]	—

仁川穀物市勢 (卅一日)

品名	單位	價格
一、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一、四等合格米	同	[illegible]
一、無檢查地方米	同	[illegible]
一、一等精白米	同	[illegible]
一、籾改良種	一斤	[illegible]
一、籾在來種	同	[illegible]
一、龍山大豆	一石	[illegible]
一、長湍大豆	同	[illegible]
一、白川大豆	同	[illegible]

米豆餘墨

人生은 누구나 將來希望을 가지기 때문에 現狀의 苦勞를 堪耐하는 것이 事實이다 ▲더욱히 定期界에 잇서서 其希望하는 것이 一層 더 切實하야 今日이 지나면 來日은 今月이 지나면 來月은 今年이 지나면 來年은 하고 그 오는 날에는 勝利를 得하리라고 期하엿슬 것이다 ▲그 希望이 만흔 新年을 迎한 後 임의 一月이 또 다 하니 大正十四年의 希望 十分之一이 또 成하엿다 ▲그러하면 今日로써 一月을 終하고 一日 休日을 充分히 發하야 진실로 有意義하게 오는 二月 新市發會에 臨하자

◇二日一言◇

時勢가 나의 마음에 適合치 아니하는 時는 幾月幾日이라도 忍耐하야 時機를 待하여야 한다 만일 時機를 待치 못하고 突然한 賣買를 無常하하면 失收는 當然하다

謹賀新年 京畿郡開山面鄰城市 酒類製造業 沈昌五

祝江華支局發展 兩寺面事務所 面長 金奎鉉 會計 呂鍾基 書記 柳澤根 同 朴鳳儀 同 朴得容

佛恩面事務所 職員一同

吉祥面事務所 職員一同

仙源面事務所 職員一同

河帖面事務所 職員一同

江華警察署 職員一同

江華金融組合 職員一同

溫水金融組合 組合長 黃明熙 理事 金顯廷

殖產 河帖產業組合 組合長 黃祐天 副組合長 沈英澤 理事 徐光應 理事 金東植

江華布木商組合

沁南殖產社

吉祥面 金健哲

中部洞里 王尙知

府內面 崔秉敦

府內面 和木商 順興商會 主 申順學

佛恩講習所 所長 朴泳默 職員 具錫範

府內面 黃國賢

府內面 古川喜一郎

江華穀商組合

府內面事務所 職員一同

森信商會廻漕部

江華聖公會

府內面 洪斗燮

祝筏橋分局發展

寶城郡栗於面可尺里 朴德鎬

寶城郡鳥城面大谷里 李奭來

寶城郡鳥城面牛川里 金東直

寶城邑內里 林山源

寶城郡筏橋面院洞 朴在素

沁信洋行 主 [illegible]

仙源面 李殷赫

佛恩面 宋在瓏

代書業 張斗榮

中部洞里 鄭木[illegible]

府內面 郭城龍

普天教江華正教部 部長 鄭世欽

寶城郡筏橋面長佐里 姜太珍

寶城郡筏橋面事務所 職員一同

寶城郡筏橋面尺[illegible]里 申文休

寶城郡筏橋面尺[illegible]里 金明錫

[illegible]面長 姜琪洙

寶城郡文德面[illegible]里 廉東玉

寶城郡鳥城面事務所 職員一同

寶城郡筏橋面古邑里 朴吉龍

寶城郡筏橋面鳳林里 金炳旭

寶城郡筏橋面七洞里 鄭基洪

樂安郡樂安面長 趙濟柄

樂安郡樂安面東內里 金現洙

全南筏橋面 雜貨穀物商 曺萬燁

全南筏橋面 各種自轉車時計眼鏡附屬品各種雜貨 李昌浩

寶城郡筏橋面長佐里 朴正五

寶城郡筏橋面七洞里 朴春廷

朝鮮全南筏橋面 海產米穀委託貿易商 朴士胤 電話 [illegible]

寶城郡筏橋面七洞里 崔在鶴

寶城郡筏橋面 南鮮貿易株式會社

寶城郡筏橋面筏橋里 蔡重鉉

寶城郡筏橋面古邑里 金寬鎬

寶城郡筏橋面尺[illegible]里 金永晩

ClibPDF - www.fastio.com